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원영선* 오윤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자녀양육 과정을 통해 이룬 자기성장 경험과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를 위하여 50세이상 65세이하의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 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자료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절차 5단계 과정에 따라 그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과 의미는 '자녀로서의 경험: 내 인생의 밑그림' '부모로서의 경험: 나를 성찰하는 성장의 시간' '자기성장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었다.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이룬 자기성장은 '부모로서의 경험'이 시발점이었으며 이때 '기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주제어 :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 자녀양육, 자기성장, 부모 됨, 내러티브 탐구

* 세은마음 클리닉 대표, 제1저자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한국성서대학교 원영선의 박사학위 논문(2022년 12월, 지도교수: 오윤선)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는 동시에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는다(Bigner & Gerhardt, 2014). 또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정인경, 김영혜, 손현미, 2017). 이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족관계에 변화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과 돌봄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며(신윤정, 김지연, 2010: 10),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Galinsky, 1987: 8). 그러나 이러한 부모 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없이 결혼하여(Jaffe, 1997), 자신의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양육된 방식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이다(곽덕영, 김미화, 2002: 27).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은 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김태중, 2006: 49). 그러나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사교육의 증가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이종각, 2010: 350-357). 한편, 성공제일주의 교육열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와 불화로 인한 청소년 가출 등은 현시대의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운숙, 박신애, 2001). 이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 가정 역시 현대가정들이 지니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입시 위주의 성공제일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학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 사교육의 팽창과 같은 교육 현상을 기독교적인 자각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부모의 모습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양태를 초래하기도 한다(최정민, 2016). 따라서 최근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 간의 당면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요구하는 성경적 부모 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현대 가정의 문제를 삶으로 살아 낸 세대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끼인 세대로서, 부부관계 그 자체보다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박하영, 전해정, 주수산나, 2020).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시대의 자녀를 양육하며 겪었던 부모 됨에 대한 과정과 그 안에서 이룬 자기성장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기독교인 가

정의 생생한 자녀 양육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대두되는 현대에 맞는 성경적 부모 됨의 필요성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해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회봉사와 사회봉사가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신앙성숙도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류인석, 2015),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우울을 개선하기 위해 독서치료 기법을 활용한 성경 묵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우울에 관한 성경적 상담방안 연구(성진희, 2016; 정병태, 2013; 전찬례, 2012, 황순희, 2020) 그리고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분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정모세, 2018)가 있었다.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생애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연구(김혜란, 2018; 김지향, 2018), 그리고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박은미, 2014)와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심리적 현상 연구(윤선자, 2009), 성인중기 여성의 성숙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있었다(이재화, 2014).

둘째, 기독교인 부모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역할에 대한 이론 정립 연구로 부모역할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부모 양육 유형 등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서 바람직한 자녀 지도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박미경, 2014; 박지숙, 2005, 황지영, 2006).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녀와의 민주적인 갈등 해결 방법, 자녀의 감정 이해, 자녀의 신앙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있었으며(이숙미, 김성희, 2009; 정희정, 2009; 채경선, 2006), 기독교인 부모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실행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 등이 있었다(김성원, 2012; 윤혜림, 2013; 장희영, 2008).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부모역할 능력 습득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학령기 아동 또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학이나 목회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주제도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기법에 치중하여 자녀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과 기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였다.

셋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기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효과 연구로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연구(강정호, 2013; 김영근, 2006; 박태경, 2019; 조연수, 2016)와 성인중기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자아실현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박태경, 2019)가 있었으며 성인중기 여성의 개별적인 자기이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저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중기 여성의 자기이해 연구(장정인, 2020)와 NLP·최면·심상기법을 활용한 성인중기 여성의 자기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박경실, 2010)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의 참된 자기 모습과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성인중기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며 심리적인 안녕감을 갖도록 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였다. 그 외 건강한 자기성장은 비기독교인 남편과의 융통성 있는 관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기독교인 성인후기 여성의 자기성장 경험 연구(안진선, 2019)와 어머니라는 존재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자기성장으로 본 연구(우미선, 2020)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기독교 성인후기 여성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자녀양육 과정과 자기성장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한 자기성장 과정을 드러낸다면 자녀양육으로 버거워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과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경험에 주목하고 그 이야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합하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 볼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심리, 정서적 측면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에 대한 이해 및 선행연구

성인중기는 발달 시기상 중년기에 해당하며 연령상으로 대개 40세-60세 또는 65세까지의 시기를 말한다(박봉수, 199: 69). Levinson(1996)은 여성의 인생 구조와 발달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4~5년의 '전환'과 '절정'의 측면을 고려하여 성인중기(중년기)를 40세-65세로 규정하였으며(정옥분, 2000: 301), Jung(1954)과 Erikson(1963)은 40세-60세를, Havighurst(1972)는 35세-60세를 성인중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과 연령은 학자마다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1981년 제정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만 65세이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성인중기를 만 50세부터 만 64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인중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생의 초기와는 다른 발달상의 특성으로 인해 심리 내적으로는 지나온 삶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외부로 향해 있던 관심과 초점이 자신의 내면세계로 옮겨지면서 자기를 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Jung(1958)은 이와 같은 성인중기의 특성을 심리적 위기로 보고 '제2의 사춘기'라 불렀다. 제2의 사춘기는 신체적, 생리적 감퇴로 인한 노화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생물학적인 변화와(Lachman, 2004)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출가, 그리고 부모나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감과 상실감, 자녀와 노부모 봉양이라는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를 말한다(Jacque, 1965; Levinson, 1986). 특히,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 중 '폐경'은 젊음과 출산 능력의 상실,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며 고립감과 우울, 위축감 등의 정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김영애, 2012). 이러한 성인중기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Jung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중대한 전환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인지와 정서에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실현이다(정태기, 2005: 196). 즉, 진정한 자기를 찾아 자신의 내면세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기라는 존재의 전체성을 회복하여 개성화(Individualization)를 이루어 낸다고 하였다(Jung, 1981).

성인중기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종교와 철학 그리고 직관적 정신세계에 몰입하여 인생 전체에 통합을 이루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Jung, 1954). 종교에 대한 중요성이 자각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종교적 수행이 증가되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힘쓰게 된다. McAdams(1993)에 의하면 성인중기의 가장 진지하게 요구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의 표현을 성숙성이라고 하였다. 성숙성의 표현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치와 의미가 담긴 유업을 남기기 위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인중기 여성은 타인이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삶의 여러 여건을 자발적으로 계승하고 조성해주는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이재화, 2014). 성경에는 성인중기의 성숙한 여인의 실제 인물로 룯이 있다. 룯은 기근과 상실이라는 결핍 요소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민영진, 2000: 91), 용의 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여한구, 2006). 또한 룯과 함께했던 나오미

는 성인중기 여성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녀는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밭을 사기도 한다. 포도원을 관리하며,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덕을 끼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잠언 31장 10절의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있고 현명한 여인이다. 이를 표준 새 번역 성서는 '유능한 아내'로 번역하고 있다. 이 표현은 잠언 12장 4절의 '어진 여인'과 룻기 3장 11절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과 그 의미가 같다. 최근 성서에는 '유능한 아내'(A capable wife, GNB, NEB, TANAKH) 또는 '좋은 아내'(a truly good wife, CEV)로 번역하고 있다(조순중, 2003).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성인중기 여성의 역할은 주로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 중심적인 여인이었다(이재화, 2014). 따라서 성경적인 성인중기 여성은 가족이 축복받는 근원이 되고 그 남편도 행복을 느끼며 주위에서 칭찬받는 여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활발히 생활하는 강한 여성으로(Henry, 1983)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기본 축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기독교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타인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자기를 실현해 가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성이라 하겠다.

2) 자녀 양육의 기독교적 이해 및 선행연구

건강한 가정은 가족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그리고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최초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능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부모는 가정의 사회화기능을 통해 자녀가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행동양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시켜야 한다(임선희, 2018). 이 과정에서 자녀는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 발달한다(송명자, 2002).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혈연적 관계 이상의 책임과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한다(이은희, 1995). 이는 부모 됨의 과업을 순조롭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과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를 감수해 내며 자녀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면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의지적

결정을 수반하는 것이다(임선희, 2018).

Galinsky(1987: 8)에 의하면 부모 됨(Parenthood)이란 단순히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수반한 과정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막중한 부모의 책무에 대해 성경은 기독교인 부모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김은주, 2021). 따라서 부모는 자녀양육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규범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최정민, 2016).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기독교적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며 기독교인으로 성장해가기 때문이다(박상진, 2010: 80-81).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적인 자녀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성경적인 자녀관의 핵심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복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20절에는 아들을 낳은 레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사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였다. 한나의 경우에도 사무엘상 1장 19-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시라 한나가 임신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양금희, 2011: 14). 따라서 부모들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같이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박수암, 2004: 189). 이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인 부모가 사랑으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독교적 삶의 태도와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왕으로서의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따라야 할 것이다(방미석, 2018).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설을 지지하며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돌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박선희, 2019).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부모이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

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방미석, 2018). 네 번째는 교사로서의 부모이다. 기독교인 부모는 가정을 축소된 삶의 현장이자 교육의 장으로 삼아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삶의 기본생활 습관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박선희, 2019).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 부모는 상담자로서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공감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고민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성격적 근거 안에서 자녀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방미석, 2018). 따라서 기독교인 부모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바로 세워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쉘마의 교훈, 아브라함, 한나, 고넬료,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테의 어머니 등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과 모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가정관, 그리고 성경적인 부모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김광률, 2009).

3) 자기성장의 기독교적 이해 및 선행연구

자기성장이란 개인의 경험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인식하고 의식을 발달시켜 건강한 변화를 이루도록 발전해 가는 개인적 향상을 의미한다(Jourard, 1971). 즉, 자기인식과 자기통합 그리고 성격의 일부분을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자기답게 사는 것을 뜻한다(송경환, 2016). Rogers(2009)는 자기성장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Maslow(1943: 1955)는 '내재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동기', '진정한 자기를 이루기 위해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은 욕구'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면서 자아실현이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다(Maslow, 1968).

Rogers(2009)는 인간 존재 속에 생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기성장' 과 '자아실현'을 같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며(Allen, 2016; Lefrancis et al., 1977; Schultz, 2001), 자기성장의 공통적인 요소로 자기탐색,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을 들고 있다(김선남, 2001; 박아청, 1998; 이해진, 김성희, 2013; 윤홍섭, 이형득, 1982; 채경선, 2006;

Maslow, 1968; Rogers, 1961).

자기성장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성장에 주도적인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며 희망적이고 자아탄력성이 높았다(Yalçın & Malkoç, 2013; Yang & Chang, 2014). 또한 환경과 자기 탐색에 주의를 기울였고 경력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tschek & Cook, 1999; Weigold, Porfeli, & Weigold, 2013).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과 원하지 않은 외부 사건을 직면하더라도 스트레스 조절력이 뛰어났다(Keefer et al., 2018; Hoggard et al., 2019). 특히 누적되고 적체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등 높은 심리내적 적응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Yakunina, Weigold, & Weigold, 2013; Yakunina et al., 2013).

Erikson(1968)에 의하면 성인중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 생애를 돌아보고 그 경험을 현재의 삶으로 통합하여 미래를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이타적인 삶을 통한 자기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때의 자기성장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의 갈등을 분리하고 그로 인한 삶의 상처를 수용하며, 내면의 혼란을 성장의 가능성으로 자각함으로써 생애 사건을 통찰하는 것이다(우미선, 2021). McAdams(1993)는 성인중기 여성이 자기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확립하여 자기실현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우울, 불안, 갈등,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주영흠, 2003).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탐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자기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경험이 될 것이며 그 과정 자체가 자기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자기성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외면하고 싶은 모습을 보는 것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다(강준민, 1999: 5).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시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Jones & Butman, 1991). 따라서 기독교적 자기성장이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고 창조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연문희, 199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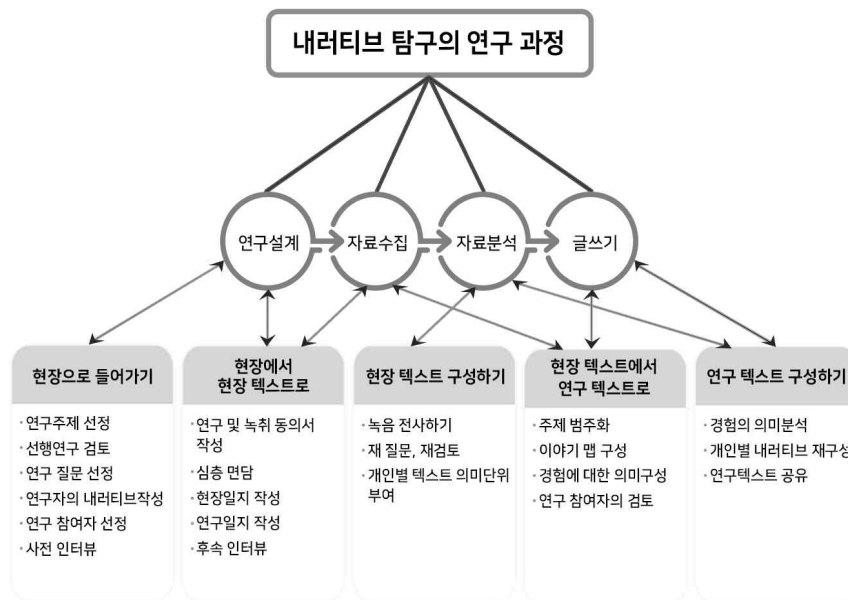
2.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내러티브 탐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연구에 의해 발전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연구 절차에 따라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이야기된 이야기에 드러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복잡하고 모호한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이정빈, 2018: 103),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한다(Clandinin, 2011: 184). 또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시간성, 사회성, 장소)을 통해 인간 경험의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를 찾고 해석하며 탐구하기 때문에(Clandinin & Connelly, 2000), 인간의 경험과 그 경험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영숙, 2015: 5-21).

2) 연구절차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과정

(1) 현장으로 들어가기

가. 연구참여자 선정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같은 동기를 갖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사전면담을 통해 선별하여야 한다(양유성 외, 2022: 174).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나이 50세 이상 65세 이하, 첫 자녀가 만 18세 이상, 학력은 대졸 이상, 결혼상태 유지, 경제적 수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지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수준이 너무 빈곤하지 않는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초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배우자 나이	학력	자녀 / 출생순위	연구참여자의 직업	배우자 직업	월소득
A.김사랑	55세	57세	대학교	첫째아들 (27세) 둘째아들 (24세)	전업주부	고위 공무원	650만원
B.최희락	58세	61세	대학원	외동딸 (31세)	목회자	건설회사 사업원	600만원
C.박화평	64세	67세	대학원	외동아들 (38세)	자영업	자영업	700만원
D.정자비	52세	56세	대학원	외동딸 (19세)	미술치료사	회사원	450만원
E.유양선	58세	60세	대학교	첫째아들 (30세) 둘째아들 (28세)	사회복지사	회사원	550만원
F.오충성	51세	55세	대학교	첫째 딸 (20세) 둘째 딸 (17세)	선교단체 간사	건축 설계사	600만원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IRB승인을 받은 후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별로 3회씩 개별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회기는 2시간 정도, 2-3회기는 30분-60분 이내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동의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와 연구 참여의 자발성, 자료보관 등에 관해 미리 고지하였다. 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탐구하기 위해

전문교수 1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의 자문을 통해 작성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증반 이후로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 드러나도록 대화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에는 연구참여자의 감정변화와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행동 등을 현장 노트에 작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기록물 등을 참고하였다. 면접 후에는 연구자의 감정과 느낌 등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된 내용을 7일 이내 전사하였다. 녹음 파일은 연구참여자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시로 반복해서 들으며 활자를 수정하는 작업에 사용하였다. 정리한 1차 파일은 연구참여자별로 적게는 A4용지 21장 많게는 35장 분량이었고 총162장이었다. 2차 면담은 전사된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동시에 연구자가 궁금한 내용과 메모해 두었던 질문 등을 추가로 묻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 나갔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별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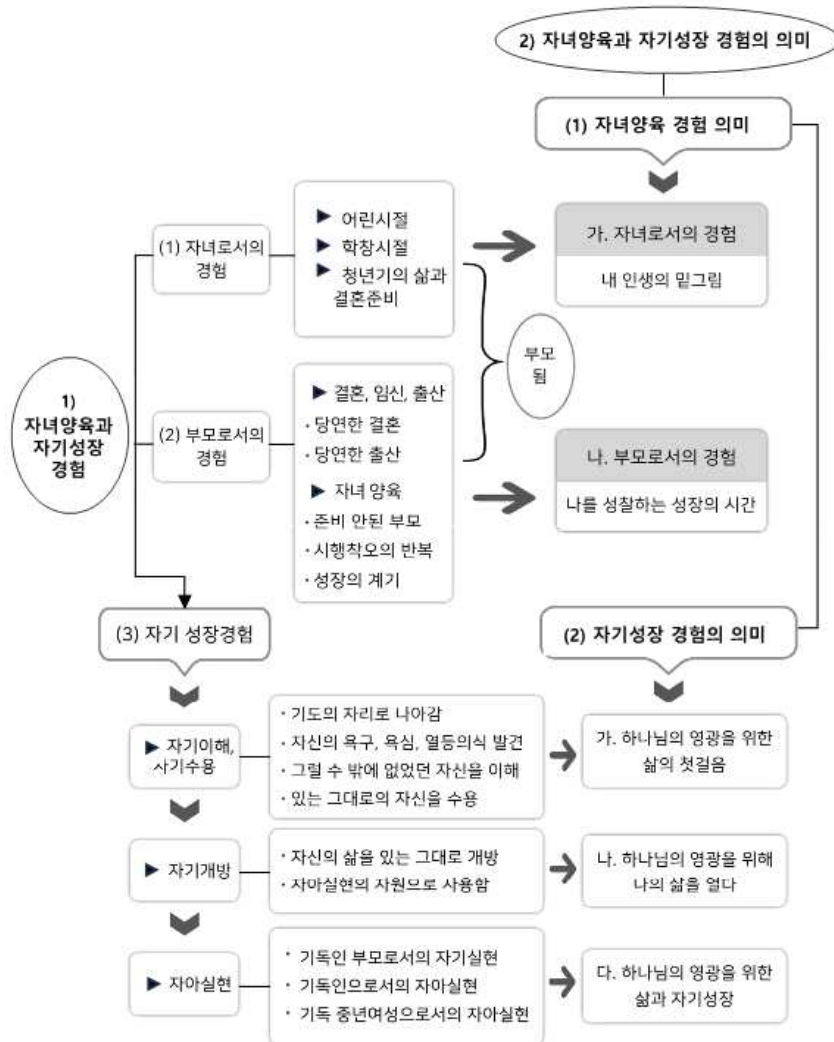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파편되고 혼재된 자료들을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며 경험의 시간성과 장소, 관련된 인물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양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자기성장 이야기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 연구 문제에 맞추어 의미를 부여하였다(양유성 외, 2022: 181). 3차 면담은 2차 면담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별 이야기와 주제별로 분류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확인하였고 분류된 주제에 대하여 어떤 은유적인 표현의 제목을 정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였다.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절적인 분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주제별로 분류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왕복운동을 통해 텍스트를 기술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7: 254-255). 기술한 내용은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왜곡된 부분이나 축소 또는 확대된 부분은 없는지 반복 확인하며 수정 보완하였다.

3. 연구결과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 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결과

1)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구성된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

험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로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자기성장 경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이다.

A. 김사랑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어린 시절, 김사랑의 어머니는 철저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지만 성공제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학습 위주로 양육하였다. 그러나 김사랑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김사랑의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가정에서의 대화는 부족했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가 없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사랑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성경공부를 통해 알게 된 신앙공동체를 통해 세상에서도 성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어떤 정결함.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가구...(중략)...중간고사 끝나면 학교 선생님 다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대접 다 하시고 봉투 다 돌리고 뭐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비호받는 딸이었고“

“그래서 나도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베이스를 갖고“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김사랑은 원하던 조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성공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낙담하였다. 김사랑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학벌 열등감과 세상적인 성공욕으로 자녀를 닦달하며 친정엄마의 양육방식을 답습한 자신을 보는 것은 고통이었다. 김사랑은 눈물로 회개하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였다.

“예를 들면 이제 큰 아이한테 좋은 학업의 베이스를 깔아주기 위해서 세 살 때부터 한글 가르친다고 별의별 교구 다 사가지고 막 가르치

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막 닦달하고..”

”나의 쓴 뿌리가 자녀들한테 그대로 다 전가되는 거였어요. 나의 자존감 낮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 자녀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3) 자기성장 경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김사랑은 부모로서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으며 자녀를 위한 기도 안에서 중보기도 해야 할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였다. 김사랑은 실패했던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가정회복의 도구로 삼았다. 또한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 또한 성인후기 여성으로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어진 교회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노년을 계획하였다.

“내가 부모가 안됐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30% 인생밖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자녀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갈구하고 기도하는 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생기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말의 절제. 소비의 절제, 그다음에 감정의 절제 그다음에 섬김에도 절제 그리고 내 어떤 생활 습관의 절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내가 확,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하게 그 말씀이 박히더라고요..(중략)..힘 닿는데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모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지금하고 있는 00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사역, 일대일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B. 최희락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최희락은 유복한 집안에 맏딸로 태어나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는 딸로 잘 자랐다. 최희락에게 아버지는 늘 기도하며 교회의 굵은일을 자처하는

신앙의 롤모델이었다. 최희락은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아 인정 받는 직장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할 시기가 되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었지만 당연하게 모든 것을 접었다.

“제가 그리고 항상 저를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너무 인정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중략)..아버지는 성전 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매일 교회 가서 벽돌 나르고 밤마다 기도하고 저한테는 아버지 영향이 많죠, 롤 모델이었으니까”

“결혼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꿈이 굉장히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다 접어지더라고 이 사람 딱 만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최희락은 기도하며 어렵게 얻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이는 학교생활과 학습에 적응하지 못했다. 최희락은 기도로 낳은 아이가 부적응을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좌절과 실망감을 안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했을 때 자신이 좌지우지하면서 아이가 문제를 안고 씨름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이 깨달아졌다. 최희락은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검사도 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막 그랬는데 애가 안생겼어요. 일단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도 아기가 갖고 싶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애를 그러다가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 당시에 재 왜 저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재는 왜 이래요 이려고 씨름할 기회를 안 주고 내가.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죠”.

(3) 자기성장 경험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최희락의 부모로서의 경험은 자신 안에 자리한 욕심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경험이었다. 최희락은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목회자의 자리로 내려갔다.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롤모델이 되고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성인중기 여성으로서 죽음의 순간까지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였다.

“욕심은 내가 한량없이 많구나.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 깨닫고..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게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곳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60 다 돼서 이제 할머니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요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C. 박화평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박화평은 국가 고위층의 자녀로 순교자 집안의 딸이었던 어머니와는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던 허용적인 아버지로 인해 아쉬움없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박화평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다. 결국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

“주인이 강아지 고양이 귀여워하듯이.. 그러니까 교류는 안 일어났던 것 같아. 감정의 교류, 내 고민이 뭔지도 몰랐고 내 고통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렇게 술을 먹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때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교류를, 그 마음의 서로 나눔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교류가 있는 감정 교류를 원했던 것 같고..”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박화평은 결혼 초부터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다. 그때부터 아이를 과잉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관성없는 양육태도는 아들의 혹독한 사춘기를 몰고 왔고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이었다. 박화평은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특히 아들의 이혼 사건과 자신의 암 투병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다. 박화평은 부모로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가게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걍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집에서 말을 안 하고...(중략)...그리고 그때 내가 암에 걸렸고 애는 그때 많이 변화가 일어났지, 그리고 2016년인가 그때 이제 여자애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해 1월에 이혼을 하고 한 10개월 살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재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 같아요”.

“나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 주 토요일 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라는 내적 치유 세미나 4주가 끝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치유, 정말 그게 메인이에요.”

(3) 자기성장 경험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박화평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도로 버텨내면서 오히려 자신이 이해되었다.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화평은 자신의 경험을 세미나에 개방하며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인중기 여성의 자아실현이라고 하였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머리로는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십자가에 죽은 어머니지”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 시기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그랬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어머니들은 그 어떤 틀을 깨야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성숙은 일어날 수도 없고 성숙을 가장한 가짜 신앙이죠”

D. 정자비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정자비는 어린 시절을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랐지만 몸이 많이 약했다. 그러던 중 거리전도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 당시 교회는 세 자매의 놀이터였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어렵게 도전한 미술에 대한 꿈을 접으면서 많이 힘들었다. 청년 시절, 정자비는 부모님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결혼도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결심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 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게 이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아들 역할을 해야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 정말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양가를 같이 잘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정자비의 결혼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첫아이의 유산 이후 7년 만에 어렵게 낳은 아이도 자신을 닮아 연약하기만 했다. 정자비는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과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점점 지쳐만 갔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놀림당하는 아이를 위해 힘을 내야만 했다. 사춘기가 된 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반항하기 시작했다. 정자비는 갱년기와 맞물려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뭐지? 이거 뭐지? 나의 연단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우리 애가 또 태어나서 참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컸으면 좋은데 우리 애도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났고 10개월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 참 우리 애가 어울리기 힘들겠다라는 그 문제점을 내가 발견하면서 애를 도서관에 매일 데리고 갔어요. 매일. 그 다음에 텃밭 동아리에서 도와주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애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오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친구를 만들어 주기 시작한 거야”

(3) 자기성장 경험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연단과 같았던 1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체험한 부모로서의 경험은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정자비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자신에게 있는 완벽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인생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화평은 기독교인 부모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성인중기 여성으로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기기로 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고 강박도 좀 있었는데 그게 굳이 그럴 의미가 없는데 왜 내가 그랬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느긋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더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또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우는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달란트들을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베풀어줘야 되겠다.”

E. 유양선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유양선은 막내로 태어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 깊게 가슴에 박혔고 아주 오랜 시간을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하였다. 유양선은 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았다. 성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감행했다

“막내니까 제일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나는 중학생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자고 막 어머니가 아프면 어머니 옆에 같이 누워 있고 그럼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면 열나잖아 그러면 나도 같이 그 열이 느껴져..(중략)..그래서 서로 그 식구들끼리 어머니 돌아가신 이야기, 어머니 얘기를 안했어요. 아무도.. ”

“결혼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롱 들고 할 때도 내가 저놈을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 책임감이야. 자기가 말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지”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유양선은 내 편이 없는 시택에서 온전한 내 편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양선의 삶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유양선이 다시 요게벳처럼 기도하게 된 것은 영재였던 아들의 일탈과 병약한 둘째 아들의 왕따를 시작으로 둘째 아들의 독립을 허락할 수 없었던 자신 때문이었다. 유양선의 부모로서의 경험은 그동안 회피했던 엄마의 죽음을 직면하는 경험으로 연결되었다. 그로 인해 자신도 아이와 한 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애, 사실 작은 애도 첫째 애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봐 낳은거지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큰애한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둘째도 낳았는데 둘째는 혹시 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애를 위해서는 딸보다는 아들이 낫잖아요. ”

“내 새끼인데 멀리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

을 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거 기도였어요.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데까지만 가도록.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애가 좀 돌아와서 그래도 그 했던 가락이 있어서 막 되게 다른 사람들이 우수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애도 지금 역군이 된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튼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3) 자기성장 경험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유양선은 자녀와 한 몸처럼 아프고 힘들어했던 자신을 이해하고 신이 넘어서야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게 되었다. 이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다. 남은 인생은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동안 받은 사랑과 감사의 은혜를 00지역센터의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려보내고자 한다. 유양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 살아가는 성인중기 여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한 50 좀 넘어서부터 괜찮았던 것 같아 그전까지는 마치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상처가 굉장히 아팠어요. 어머니 얘기만 해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안 한 지가 얼마안돼. 둘째가 독립한다고 하니까 그냥 알게 된거야..”

“이 일을 계속하고 사실 할머니 같지만 애네들한테는 나이가. 그런데 애네들 나한테 자비쟁이라고 하는게 참 좋아요. 애들이 이쁘고 귀엽지만 또 그런 중에서도 지혜롭게 이길 꼭 해야 되는 거 딱 시킬 수 있는 게 또 지혜거든요.”

F. 오충성 이야기

(1)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오충성의 어린 시절은 늘 혼자였고 외로웠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춘기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불안은 언젠가부터 오충성의 삶을 흔들었고 그렇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지쳤을 때 쉬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사춘기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을 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실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을 빨리 시작했잖아요. 29살 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새해가 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찾게 해주 시던지 아니면 그냥 결혼을 시켜주시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2)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오충성은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부모인지를 피부로 느꼈다. 매번 허둥대는 불안하고 능력없는 엄마라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했다. 오충성은 아이들에게 더 유능한 엄마가 되고자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배움 안에서 발견한 자신은 아이들을 편애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 많이 부딪쳤고 그로 인해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충성은 회개하며 아이들을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 보게 되었다.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라는 걸 하고, 내가 생각이라는 것도 하고, 그런 교육도 좀 받고, 아이는 더더욱 더 준비를 하고 낳아야 되는데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하고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거니까 낳는다고 생각하고.”

“둘째가 잘 먹고 잘 싸니까 그 사랑이 작은 애한테 확 가버린 거죠. 그때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도 애들이랑 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교육과 공부를 하니 이론적으로 애네들의 발달 현상을 알게되고 집에 와서 보면 애네들이 그냥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냥 애네들을 그냥 이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야 어쨌든 애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

(3) 자기성장 경험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

오충성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인생의 성숙함을 알게 해 준 아이들이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는 숙제처럼 미뤄둔 불안을 해결하고 싶었다. 오충성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 부모 이전에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 영성훈련 공동체에 동참하였다. 또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으로서 주신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섬기고자 상담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게 나를 보호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이를 기르지 않았다면 인생의 성숙함을 모르고 살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했던 제가 지금도 남아 있는 불안 염려를 해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그래서 어느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를 해서 봤을 때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이란 잘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어떤 생각들 안에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2) 자녀양육과 자기 성장 경험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추려내고 요약하며 분석한 결과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경험한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자녀로서의 경험 : 내 인생의 밑그림’, ‘부모로서의 경험: 나를 성찰하는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자기 성장 경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1) 자녀양육 경험 의미

가. 자녀로서의 경험 : 내 인생의 밑그림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삶은 개인마다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었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성격과 타인을 대하는 관계 방식,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형성하며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고 있었다(Chodorow, 1989).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성인 이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양식의 토대를 제공하였으

며 사회적응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었다(Bronfenbrenner, 1977). 김사랑, 최희락, 박화평은 부유한 가정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자랐지만 최희락을 제외한 둘은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이들의 정서적 결핍은 성인기의 자녀양육과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정자비와 유양선, 오충성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 부모관계가 좋았던 정자비는 달리 과잉보호로 어머니와 융합되었던 유양선과 방임처럼 어린시절을 보낸 오충성은 성인 이후에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자신의 부모처럼 관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허용적인 부모에게 자란 박화평과 유양선은 자녀를 과잉보호하였으며 공감적인 부모에게 양육된 최희락과 정자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녀를 먼저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사랑은 학습위주의 성공제일주의로, 따뜻한 양육경험이 부족한 오충성은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부모관계 및 양육경험은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밑그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부모로서의 경험 : 나를 성찰하는 성장의 시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열등감,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였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밑바닥을 보는 경험을 하였다. 김사랑은 자신의 열등감을, 최희락은 욕심의 그림자를, 박화평은 일관성이 없는 양육방식을, 정자비는 자신의 밑바닥을, 유양선은 엄마에 대한 애도를, 오충성은 자신의 불안을 마주하였다. 그러한 경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회개기도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경험이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였으며 새롭게 재인식하는 성찰이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2)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부모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룬 자기성장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걸음 : 자기이해, 자기수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열다 : 자기개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자기성장” 이다.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걸음 : 자기이해, 자기수용

연구참여자들은 좌절과 혼란의 자리에서 아이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요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재인식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모 자신의 연약함과 미성숙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기도로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사랑은 새벽예배를 회복하며 기도해야 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최희락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으며 박화평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자비 역시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유양선과 오충성은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열다 : 자기개방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각하고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또한 시행착오와 실수가 반복되었던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개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자원으로 사용하였다. 김사랑은 자신의 삶을 일대일 양육과 증보기도 사역에 개방하며 사역의 자원으로 삼았다. 최희락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신학을 진행하였으며 박화평은 새로운 곳에서 치유사역을 시작하며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양육경험을 공개하며 자녀상담을 하였다. 정자비는 어린 시절 자연과 미술을 좋아했던 달란트를 살려 미술치료자의 길로 들어섰고 유양선도 지역아동센터의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의 경험을 나누었으며 오충성은 상담을 받으며 불안한 심리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자기성장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원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 부모 이전에 한 사람의 기독교 신앙인으로, 그리고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루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갔다. 김사랑과 최희락, 박화평은 기도에 전력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다. 정자비는 미술치료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치료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쌓고 있다. 유양선은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기뻐하는 센터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오충성은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여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향하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 점이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으로서의 자기성장이라는 점에 그 의미를 둔다.

III. 닫는 글

1. 연구의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심층 탐색하고 분석하여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내러티브 3차원 공간에서 탐색하고 분석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구성된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로 ‘자녀로서의 경험 : 어린 시절과 청년기’, ‘부모로서의 경험: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자기성장 경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아실현’이다.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경험한 자녀양육 경험 의미는 ‘자녀로서의 경험 : 내 인생의 밑그림’, ‘부모로서의 경험: 나를 성찰하는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은 부모와의 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은 연구참여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어 사춘기 이후의 삶과 성인기의 직업 선택 그리고 결혼 과정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부합한다. Chodorow(1989: 45)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모녀 관계나 모자 관계가 향후 딸들이나 아들들의 성격과 성 역할,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초기 관계를 형성하며 가정의 사회화 기능을 통해 성격과 자존감, 가치관을 형성한다(임선희, 2018; 송명자, 2002). 또한 삶을 대하는 고유의 태도와 양식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도덕적,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 발달한다(송명자, 2002). 따라서 가정이 제공하는 양육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 됨에 대한 준비와 부모 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 됨에 대한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 자신이 양육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양육태도가 원가족에서 겪었던 가족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다르지만(Belsky, 1984), 세대 간 전이된다는 점과 부합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과 부모로서의 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갈등과 혼란은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기 성장의 첫걸음이 되었다. 6명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년여성들의 자기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는 자신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김명자, 2003). 연구참여자들도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점검하면서 미래의 삶에 대해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외적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전환하여 내면을 통찰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합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한다(김조자, 전산초, 최영, 1992). 즉 중년여성의 자기성찰은 중년을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하였으며 자기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옥희, 김연경, 2016).

넷째, 자기성장의 맥락에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은 자녀양육 경험을 통하여 성경적인 부모상을 정립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자 하였다(김은주, 2021). 또한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이해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최정민, 2016)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롤모델이 되고 있었다(박상진, 2010: 80-81).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상(像)을 정립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다양한 역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은 부모라는 역할 외에도 중년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 등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 이전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달란트와 사명감을 가지고 타인과 사회적인 관심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성인중기 여성으로서도 자신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또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조명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미해결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중년여성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성숙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동시에 삶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하였다(Fowler, 1987). 연구참여자들도 모든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었다. 행

동에 앞서 기도하였으며 말씀에 따라 선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도 후에는 개방적인 자세로 맡겨진 사역부서와 팀, 이웃과 동료의 필요와 아픔을 돌보는 등 타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섬김의 행위에 앞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을 먼저 살피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였다. 또한 물질은 잠깐 동안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개념(오윤선, 1997)을 염두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분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였다. 그리고 잠언의 현숙한 여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을 섬기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삶의 중심축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송진영, 2017), 자녀양육 경험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선희, 2018)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숙과 더불어 부부관계에도 도움을 주는 경험(Crown, 1988)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여섯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이루어가는 자기성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은 자녀양육 경험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으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공감하였다. 또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경험과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실현의 동력은 기도였으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이 점이 비 기독교인과의 차이점이고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기성장의 시발점은 부모로서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경험은 자기성장과 연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성장의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과정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이라는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통한 자기성장 경험의 의미를 기독교 상담심리학에 기초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탐색하고 그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하는 첫 시도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적 경험을 실제적

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인 예비 부모와 지금도 자녀양육으로 고군분투하는 기독교인 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기독교인 가정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에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협력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성찰과 성장이 일어난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는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 양육의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서로 통감했으며 함께 나누고 올랐다.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를 가슴 깊이 공감했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재인식하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다.

셋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은 자녀양육 경험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통찰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요소를 소화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공적인 노년기의 진입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

넷째, 자녀양육을 통한 자기성장은 성취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되어 가는 과정적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 자신의 한계를 신앙 안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통과하는 경험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들을 포함한다. 이 점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자아실현 과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자기성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재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다음 세대와 이웃,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으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아실현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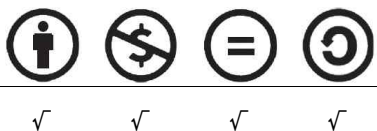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는 부모 됨의 과정을 드러내는 연구임에도 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만을 담았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세대로서 부부관계 그 자체보다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았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였다면 자녀양육에 있어 주양육자의 역할은 어머니가 우선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부모 됨의 대표성을 제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로서 아버지는 어떠한 자녀양육 경험과 자기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자녀가 바라보는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그들은 양육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부모 됨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50세-65세 까지의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이었다. 이들은 결혼을 생의 통과례로 생각했던 세대이다. 따라서 다른 세대별 부모 됨과 자기성장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더 선명하게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한계를 인식하였고 공통적으로 자기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있는 부모들과 영유아, 또는 아동기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시발점은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인 연구자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부모역할은 존재가 흔들리는 강한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며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의 전환기이자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인중기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경험을 확장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과 부모가 되어 가면서 이룬 자기성장은 무엇인지 그들이 이룬 삶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 생생한 자녀 양육의 경험과 그 의미를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통해 이룬 자기성장에 집중한 결과,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 가족 체계적인 특징과 아버지의 역할 및 그로 인한 자녀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자녀양육에 있어 기독교인 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강준민 (1999). **자아발견과 영적성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강정호 (2013). 자기이해에 기초한 신앙성장 교육교재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 개정).
- 곽덕영, 김미화 (2002). **부모교육론**. 서울: 양서원.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김광률 (2009). 기독교 부모의 영성과 영성형성. **기독교교육논총**, 17, 219-247. <http://dx.doi.org/10.17968/jcek.2008..17.007>
- 김명자 (2003).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문길, 김성아, 한겨레, 김병권, 전광희, 조준모 (2021). 청년층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 55.
- 김삼복 (1999). 성숙과 교육-종교심리학적 분석. **기독교와 교육**, 1, 34-37.
- 김선남 (2001). **자기성장 집단상담 모형과 프로그램**.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김성원 (2012).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33)6, 117-150.
- 김영근 (2006). 글쓰기 고백을 활용한 내적치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세미나**, 2-36.
- 김옥희, 김연경 (2016). 중년여성의 애착, 외상 후 성장 및 자기실현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07-517.
- 김은주 (2021). 기독교 부모의 하나님 경험이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온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조자, 전산초, 최영희 (1992). **성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 김지향 (2018). 중년기 여성의 진로구성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춘경, 김숙희, 최은주, 류희서, 조민규, 장효은 (2018). **활동을 통한 성격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태종 (2006). **교육열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실증연구**. 서울: 대통령 자문교육혁신위원회, 49.
- 김혜란 (2018). 중년여성 가구주의 재취업 좌절에 대한 심리 사회적 현상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인석 (2015). 기독교 중년여성의 신앙성숙도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

- 회봉사와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진 (2000). 현숙한 아내냐, 유능한 아내냐?. **성경연구**, 6(10), 42-59.
- 박경실 (2010). 중년기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NLP·최면·심상기법을 활용하여.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 (2014). 근본적 교사로서 부모역할 제고를 위한 기독교 교육연구. **신학논단**, 78, 125-57. <http://dx.doi.org/10.17301/tf.2014.78..005>
- 박봉수 (1999). **교회의 성인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상진 (2010). **기독교 교육과 사회**.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 박성연,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전은다, 임희수 (2003).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암 (2004). **신약 주석 옥중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미 (2014). 기독교 중년여성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5). 현대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바울의 몸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 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경 (2019). 중년여성의 자기실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검증.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하영, 전해정, 주수산나 (2020). 중년 부부의 성 역할 태도 유사성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부부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27-141.
- 방미석 (2018).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방법. 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진희 (2016). 기독교 중년여성의 우울증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경환 (2016). 시설 청소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선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 (2002).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진영 (2017). 기독교 중년여성의 영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총신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윤정, 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8), 10.

- 안진선 (2019). 기독교 중년여성의 비기독교 남편과의 종교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연구.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 아동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상담학 논문작성을 위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 학지사.
- 여한구 (2006).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풋기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문희 (1994).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창학사.
- 오윤선 (1997). 중년기 위기에 대한 예방과 기독교 상담. 한국성서대학교 **일립논총**, 5, 69-92.
- 우미선 (2021). 어머니 되어가기와 중년여성의 자기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선자 (2009).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 연구.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림 (2013).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른 부모역할 책임의식 및 만족도 비교 결과의 부모 교육적 함의.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홍섭, 이형득 (1982). 자기 성장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지도상담**, 5, 1-46.
- 이동욱 (2021). 재택근무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영향과 감정. **한국노동 패널 학술대회**, 255.
-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01). 11.
- 이숙미, 김성희 (2009).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23-746.
- 이은희 (1995). 초산 부부의 임신 경험에 관한 연구: 부모 전환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화 (2014). 중년여성의 성숙성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 성결대학교신학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8). **질적연구 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종각 (2010). 한국교육 변화의 동력으로서 교육열. 이종재, 김성열, Don Adams (편), **한국교육 60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혜진, 김성희 (2013). 대학생용 자기 성장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4, 609-626.
- 임선희 (2018).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 됨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정인 (2020). 저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기 여성들의 자기이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영 (2008). 교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리 주도 평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찬례 (2012). 중년 전환기 여성의 인생 구조 변화와 신경증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모세 (2018). 기독교 중년여성의 분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총신대학교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태 (2012). 기독교 중년여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성경 독서치료의 효과. 한영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운숙, 박신애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10.
- 정인경, 김영혜, 손현미 (2017).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관련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23(4), 449-458. <http://dx.doi.org/10.4094/chnr.2017.23.4.449>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총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태기 (2000).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치유목회연구원.
- 조순중 (2003). 잠언서에 나타난 여인 지혜에 관한 연구 :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수 (2016). 도예 작업을 활용한 점토 치료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변환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영흠 (2003). **서양교육사상사**. 서울: 양서원.
- 진미정, 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9(2), 2.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민 (2016). 기독교 부모 역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2). 인구동향 조사. (9. 28 보도자료).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황순희 (2020). 중년 기독교 여성의 상실로 인한 우울에 대한 성경적상담의 대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지영 (2003).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기독교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en, B. P. (2015). *Development, growth and diversity*. Vol. 5. New York: Psychology Press.
- Bigner, J. J., & Gerhardt, C. (2014).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Boston: Pears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Chodorow, N. J.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francisco: John Wiley & Son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공역,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경기: 교육과학사. (원전 2006 출판).
- Clandinin, D.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Borderland spaces and tens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35-7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wan, P. A. (1988). *Becoming a father*. In P. Bronstein & C. P. Cowan (Eds). *Fatherhood together: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13-15. New York: John Wiley & Son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owler, J. W. (1987).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 The six stage of parenthood*. New York: Berkeley.
- Galinsky, E. (1997). **아이의 성장 부모의 발달** (권영례 역,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서울: 창지사. (원전 1987 출판).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Hoggard, L. S., Powell, W., Upton, R., Seaton, E., & Neblett, E. W. (2019). Racial discrimination,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African American men's depressive symptomatology: A moderated mediation model.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5*(4), 472-482. <https://doi.org/10.1037/cdp0000264>
- Jaffe, M. L (1997). *Understanding parenting*. MA: Allyn & Bacon.
- Jaques, E. (196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ones, S., & Butman, R. (1991).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Jourard, S. M. (1971). *The transparent self: Self-disclosure and wellbeing*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Jung, C. G. (1958). *Two essays a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World.
- Jung, C. G. (1981). *The soul and death*. In C. G. Jung, *Psychology and the occult*, 126-137.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efer, L. A., Brown, M., McGrew, S. J., & Reeves, S. L. (2018). Growth motivation moderates a self-serving attribution bias in the health dom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4*, 60-65. <https://doi.org/10.1016/j.paid.2018.05.047>
- Keith, S. C., Joshua W., Brad O., & McAdams D. P. (2010). Generativity, the big five, and psychosoci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8*(4), 1185-120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10.00647.x>
- Lachman, M. E. (2004).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 Psychology*, 55, 305-331.
-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 Levinson, D. J. (1998).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역, *The seasons of a man's life*).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전 1986 출판).
- Lefrancis, R., Leclerc, G., Diue, M., Heert, R., & Gaulin, P.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self-actualiza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5(4), 353-365. <https://doi.org/10.2224/sbp.1997.25.4.353>
- Maslow, A. H. (1943). A Theory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slow, A. H. (1962). *Deficiency motivation and growth motivation*. In A. Maslow (Ed.)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19-42. New York: Van Nostrand.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ew York: Van Nostand.
- Matthew, H. (1983). *Matthew Henry's commentary*. New York: Flemin H. Revell.
- McAdams, D. P. (1993). *The stories we live by: Personal myths and the making of the self*. New York: Marrow.
- Robitschek, C., & Cook, S. W. (1999). The influence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coping styles on career explor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27-141. <https://doi.org/10.1006/jvbe.1998.1650>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gers, C. (2007).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오제은 역, *A way of being*). 서울: 학지사. (원전 1977 출판).
- Rogers, C. (2009).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진정한 사람되기** (주은선 역, *On becoming a person*). 서울: 학지사. (원전 1961 출판).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Schultz, D. (2001). **성장심리학** (이혜성 역, *Growth psychology*).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부. (원전 1977 출판).
- Weigold, I. K., Porfeli, E. J., & Weigold, A. (2013). Examining tenets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using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396-1403. <https://doi.org/10.1037/a0034104>
- Wink, P., & Dillon, M. (2002). Spiritual development across the adult life course.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9, 79-94. <https://doi.org/10.1023/A:1013833419122>
- Yakunina, E. S., Weigold, I. K., & Weigold, A. (2013). Personal growth initiative: Relations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2(1), 62-71. <https://doi.org/10.1037/a0030888>
- Yakunina, E. S., Weigold, I. K., Weigold, A., Hercegovac, S., & Elsayed, N. (2013). International students' personal and multicultural strengths: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promoting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2), 216-223. <https://doi.org/10.1002/j.1556-6676.2013.00088.x>
- Yalçın, İ., & Malkoç, A. (2013). Adaptation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 to Turkish and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26, 258-266. <https://doi.org/10.5350/DAJPN2013260304>
- Yang, H., & Chang, E. C. (2014). Examining the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hines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intentional self-change among Chines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5), 559-566. <https://doi.org/10.1080/00223891.2014.886256>

[Abstract]

Narrative inquiry into the Child Rearing and Self-growth Experience of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Weon, Young-Sun* Oh, Yoon-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elf-growth experiences and their underlying meanings that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an have achieved through the process of raising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s for achieving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experiences of self-growth through child-rearing among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Second, what are the meanings of thes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and self-growth among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To conduct the research, six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between the ages of 50 to 65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following Clandinin and Connelly's (2000) narrative inquiry procedure consisting of five stages, in order to explore their experiences and derive their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self-growth among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is connected with their role as parents. Importantly, prayer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their lives towards one dedicated to God's glory.

Key words : Christian adult middle-aged women, child rearing, self-growth, parenting, narrative inquiry

* SEON mind clinic / Counselor

** Korean Bible University, Department of Liberal Studies / Professor